“투표=권리”… 이주여성, 한표로 평등사회 꿈꾼다

광주시, 이주여성 참정권 보장 캠페인… 지역사회 일원·정치 주체
이주여성 “처음이라 떨리지만 큰 책임감… 더좋은 대한민국 만들것”

광주시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 거주하는 3900여명의 이주여성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참여 실천 활동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광산구가족센터(송정다누리센터)에서 ‘광주 이주여성, 투표 참여로 소중한 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투표가 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정치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여성 참정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주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주여성 50여명,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장,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투표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 유권자 역할,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이주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투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고목금 씨(중국 출신)와 이미선 씨(몽골 출신) 등이 처음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 과정이 낯선 이주여성들을 위해 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이주 14년 만에 투표권을 얻어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A씨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제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인식보다 대한민국 국민 자녀로서 앞으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선 투표를 꼭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으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B씨는 “중국에서도 투표를 해본 적 없는데 태어나서 하는 첫 투표가 6월3일 대통령선거라 매우 설렌다. 중국 친정 식구들에게도 자랑하겠다”며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투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다”며 “투표를 통해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꿈꾸는 포용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의 꿈이지만, 무엇보다 값질 광주 투표율 92.5%를 향해 함께 손 맞잡아 달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헌법적 권리인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든 세대가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캠페인-투표가 힘입니다’를 펼치고 있다. 18세 생애 첫 투표자 등 청년층 투표참여 유도,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편리한 투표소 접근성 확보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도일 기자

광산구의회,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심각

특별재난·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2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정부에 주민 피해 지원 및 고용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공장의 약 3분의 2가 전소되고, 2,400여 명의 공장 노동자와 6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의회는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장 재가동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피해 대책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피해는 어제 기준 2,000여 건이 넘게 접수됐고 그중 절반가량은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 인적 피해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대민 지원을 위해서는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인력 조정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도 화재 이후 희망퇴직 권유 등 구조조정에 나선 사례가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역시 직원 해고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즉각적인 주민 지원 대책 마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통해 노동자 고용 대책 강구 ▲유독가스, 분진 등 직·간접적인 주민 피해와 고통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준행 기자

광주시의회, 시민과 함께 광주 야간관광을 설계한다

오는 24일 예결위회의실서 야간관광 활성화 주제 컨퍼런스 펼쳐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는 24일 14시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 야간관광 자원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제60회 시민의 날을 맞아 지역 현안을 광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시민 및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재윤 한국관광개발원 팀장의 발제에 이어 6인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는 안평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박종찬 광주대 교수, 임소희 한국관광공사 연구원, 이용규 트레블레이블 대표, 김대성 광주시 축제도시팀장이 나선다.

이날 발제자인 이무용 교수는 ‘문화로 빛의 도시 광주를 밝히자!’를 주제로 야간관광의 문화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 교수는 ▲야간문화지도 만들기 ▲제3의 장소로 관계 인구 만들기 ▲시간권을 누리는 문화의 밤 만들기 ▲걷고 싶은 광주 야간 산책길 만들기 ▲밤의 시장(Night Mayor) 등 야간관광의 7대 프로젝트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윤 팀장은 ‘야간관광, 끌리는 콘셉트의 비밀’이라는 발제를 통해 광주 야간관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영·성주 등 야간관광 사례분석에 따른 광주 5개 자치구별 야간관광 자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광주 야간관광의 현주소와 방향성, 스토리텔링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 야간관광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승원 기자

북구,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능동적인 행정 통한 탁월한 성과 이룬 우수사례 ‘5건’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공직자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익 증진, 고충 민원 해결, 주민 체감형 신규 시책 발굴 등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 모범사례를 선발 및 포상하여 조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구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 체감도 ▲적극 및 창의성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개의 항목을 평가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5개 사업(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이 선정됐다.

먼저 최우수상은 ‘삼호축산 악취배출시설 폐쇄’ 사례로 결정됐다.

지난 2023년부터 양산·운암·동림동 일대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700여 건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및 사업장과 적극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저출생 극복 신규 시책’(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픈아이 병원동행, 아이맘 교통비 지원, 삐뽀삐뽀 돌봄센터 조성) 추진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로 인정받아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이번 UEL 우승으로 마침내 프로 커리어에 우승 타이틀을 추가하게 됐다.

이 대회 전까지 손흥민의 유일한 우승 경력은 국가대표로 나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유일했다.

축구 통계전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프로 데뷔 후 619경기를 뛰었고, 토트넘에서만 454경기를 소화한 뒤끝에 첫 트로피에 입맞춤했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은 토트넘이 1-0 앞선 후반 22분 히샤를리송 대신 교체로 투입됐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비에 헌신하며 토트넘 우승에 일조했다.

방송 진행자가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됐나요“”라고 묻자 손흥민은 “네! 레전드라고 부르겠다. 딱 오늘만”이라며 첫 우승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손흥민은 토트넘에 트로피를 안기기 전까진 자신을 레전드라 부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7년 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 놀라운 선수들과 해냈다”며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 오늘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리그 20개 팀 중 17위에 처져 있다. 이는 1992년 EPL 출범 후 가장 낮았던 15위보다 안 좋은 성적이다.

손흥민은 “시즌 전체를 돌아보면 항상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언제나 선수들과 함께 이겨냈다”고 돌아봤다.

토트넘에서만 3차례 준우승의 아픔을 맛 본 그는 “정말 간절히 원했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이 경기를 꿈꿨다”며 “마침내 해냈고, 이제 편하게 잠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는 날로 만들고 싶다”며 “내일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새벽 시간 자신을 응원해 준 한국 팬들을 향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손흥민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가족처럼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UCL)에 나서게 된 그는 “그곳은 항상 세계 최고의 팀들과 겨룰 수 있는 무대라 정말 기대된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뉴시스